

저자 답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독자 논평에 저자가 답변함

마이클 H. 헌트(노스캐롤라이나대)

스티븐 레빈의 날카로운 논평은 (그것만으로도) 세미나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이슈들을 제기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 주목하겠다. 국가에 대한 사고, 즉 국가관이 대중국 정책에 대한 우리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다.

모택동과 등소평 시대의 논쟁적 관계를 검토해보자. 모택동의 과도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한다. 집중된 국가권력이 시민-신민을 감시하고 형성하고 동원하고자 할 때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하고 소름끼치는 해악에 대해 제임스 스콧의 *Seeing Like a State*는 흥미진진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강한 국가의 과도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과 또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등소평의 경제적 성공은 모택동이 창출한 국가의 성과에 의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택동은 그 과정에서 폭력의 독점을 확보하고 관료적 통제를 풀뿌리 인민들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제거했으며, 국경지역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남용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지

만, 강한 국가 없이는 통제 경제를 실시할 수도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

중국의 국가를 평가할 때, 비교의 대상은 이상적인 정체가 아니라, 1945년 이후의 발전 국가들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포획되거나 약소국의 위치에 머물렀다. 그들 역시 중국의 강한 국가의 과도함에 필적할 만큼 인민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중앙의 권위와 비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참상과 혼란을 상쇄시킬 만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 해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이 점에서 좋은 사례이다. 약탈적 엘리트가 국가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상대적 저성장을 이끌었고 고질적인 사회적 불만을 초래했다. 교육 확대, 물적 인프라 구축, 장기 개발 전략 이행, 국가 정체성 확산 등의 과업에서 마닐라의 국가기구가 실패하면서, 20세기 중반 당시 중국에 비해 상당히 우월했던 필리핀의 물적 조건은 사라져 버렸다.

국가에 대한 사고의 유용성은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주요한 영역에까지 확장된다. 중국에 대해 미국이 겪는 어려움의 근원이 바로 그 영역이다. 확실히, 다원주의적인 미국의 정치체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들은 긴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을 부각시키고 그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미국적 관념의 반영이다. 많은 논객들, 비평가들, 심지어 현재의 대통령까지도 중국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단지 무역, 인권, 티베트 등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헌법과 견고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정부라는 앵글로-아메리칸적 개념과 완고한 중국의 정치적 비전 사이에는 심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그들 모델의 보편성을 고집한다면, 강건하고 성공적인 중국과의 관계는 고질적이고 위협스런 오해와 비생산적인 불신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Author's Response to Reader Comment on "Responding to the China Challenge"

Michael H. Hunt(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teven Levine's comments, cast in his always-trenchant style, raise issues rich enough to justify a seminar. Let me focus for the moment on one basic point: how thinking about the state might illuminate at least some of our differences over China policy.

Let's take the disputed relationship between the Mao and the Deng eras. No question about Mao's excesses. James Scott's *Seeing Like a State* makes a compelling case for the serious, even horrific damage concentrated state power can inflict as it seeks to conduct surveillance upon, shape, and mobilize its citizen-subjects. But on the other hand, shouldn't we consider the entire record of the strong state, not just its excesses? In that fuller context we can see that Deng's economic success depend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state that Mao created in securing a monopoly of force, extending bureaucratic control down to the grassroots, breaking foreign constraints on decision-making, and restoring and defending border

areas. No strong state with all its potential for abuses, no means to implement reform or embark on a dirigisme economy.

Evaluating the Chinese state should also allow for comparisons not with some ideal polity but other states in the post-1945 developing world. Most have been weak or captured by self-serving elites. They have produced human suffering comparable in degree if not kind to China's strong state excesses, only with this major difference—little if anything appears on the positive side of the ledger to balance the social misery and chaos that results from an absence of authority and vision at the center. The Philippines is a good case in point. A predatory elite has kept the state weak. It has produced relatively poor growth and spawned endemic social discontent. The considerable material advantages of the Philippines relative to China at mid-century have vanished as the state apparatus in Manila failed to promote education, develop physical infrastructure, apply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and generate a widely shared national identity.

The utility of thinking about the state extends to the other major area of our disagreement: the source of U.S. difficulties with China. To be sure, various kinds of “interests” in the pluralistic U.S. political system account for tensions (as Levine suggests). But magnifying those tensions and giving them symbolic weight are American conceptions of what kinds of states are legitimate. Polemicists and commentators and even the current president worry about China not simply because of trade, human rights, or Tibet. These and other irritants taken together suggest a stubborn Chinese political vision profoundly at odds with Anglo-American notions of government constrained constitutionally and by the claims of a robust individualism. As long as U.S. policymakers insist on the universality of their model,

relations with a robust and successful Chinese state will remain prey to deep-seated and perhaps dangerous misunderstanding and corrosive mistrust.